

유럽이민이 아르헨티나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 1870~1914

김 현 창
(서울대, 스페인중남미연구소장)
최 윤 국
(스페인중남미연구소 특별연구원)

1. 서 론

海外移住의 확대가능성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무한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海外同胞數가 5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한민족을 6,500만명으로 볼 때 인구 13명당 1명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과밀하고(2000년에 인구 밀도 506인/km²로 예상)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 해외 진출은 필연적 사실이므로 보다 더 완벽한 海外移住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移民을 구성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셋으로 분류해 보면 ① 送出國의 상황 ② 이민 당사자 ③ 受民國의 상황 및 정책을 들 수 있겠다.

이제까지 우리 나라의 海外移住史는 위의 세 요소中 ① 送出國의 상황과 ② 이민 당사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앞으로의 海外移住政策에서는 ③ 受民國의 상황과 정책에 더 많은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이민은 受民國의 사정을 보다 잘 이해하여 질서와 개척자 정신을 소유한 개인의 번영이 送出・受民國의 번영과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국가간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勞動力, 技術, 資本 등 광의의 경제협력을 受民國이 희망하는 분야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몇몇 지역 중에서 특별히 아르헨티나를 선택한

다. 아르헨티나는 19C 중반 이후부터 유럽 이민의 이주에 의해 국가가 건설되고 경제가 발달한 나라이다. 특히 유럽 이민의 대량 유입이 있었던 1870~1914 기간 동안에 유럽 이민이 아르헨티나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을 연구해 봄으로써 受民國 研究에 일조하고자 한다.

현재에도 아르헨티나는 큰 경제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나라의 모든 구석 구석에 인간이 정주할 수 있고, 또 곳곳에 富가 매장되어 있는 나라이다. 만일 아르헨티나의 식품생산 가능 지역이 완전 개발된다면 현 아르헨티나 인구의 100배에게 그 생산물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¹⁾

끝으로 아르헨티나는 2차 대전이후 白人主義 政策에서 전환하여 인구 5천만을 목표로, 또한 자국의 균형있는 국토 발전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移民流入을 희망하고 있으나 選別的 移民政策을 펴 나가고 있다.

이러한 受民國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移民歷史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해외 진출 방향을 올바르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2. 본 론

1) 19C 世界經濟의 흐름

아르헨티나가 독립되는 1816년 경에 유럽에서는 급속한 변화가 일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매우 빠른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또한 移村向都의 경향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이 두드러지게 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들 유럽 국가들에서는 과다하게 집중된 인구를 送出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한편 산업발전을 위한 1차원료의 원활한 수입과 제조품의 판매를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작업은 육상, 해상 운송수단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19C의 세계경제는 일단 “中心”과 “周邊”이라는 두 지역의 상호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들 간의 근본적 상호 관계는 “주변” 지역이 산업화된 지역에 1차 상품과 원료 수출을 하는 반면, 이들 선진 공업국은 주변국들에게 제조품과 자본을 수출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처럼 중심지가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 주변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는 게 일반적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중심”과 “주변”의 관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동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C의 산업발전에 따른 빠른 인구의 증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1) I.L.C.T.R.I., *Argentina: el futuro, hoy*, Siglo XXI, Madrid, 1981, Int.

들 산업화된 중심지역의 인구 증가는 상대적으로 기존 농경지의 부족을 초래하였고, 그에 따라 이들 지역의 농산물 가격은 주변국들에 비해 상승되어 결국 農産物生産이 더이상 인구증가율을 따르지 못하게 되면서 중심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과의 교역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던 것이다.

중심지역의 인구 증가는 또한 勞動力—土地의 함수관계에 따라 노동력의 과다현상이 야기되었는데, 초기에 이런 노동력은 도시로의 유입을 보이다가 다시 해외로의 유출현상을 일으켰다. 이렇게 유출된 노동력은 개발되지 않은 해외의 1차 원료산지로 집중되는 현상을 일으켰다.

결국 유럽에서 일어난 기술혁신과 농업에서의 변화 그리고 이에 가중된 인구 증가로 인해 이들 지역에서 海外移民이라는 排出要因이 발생한 것인데, 이들 유럽인구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농업 자원과 온화한 기후 및 人口過小地域 즉 세계 안의 “비어있는 지역(Zonas Vacías)”으로의 이동 현상을 보인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발달한 해상 및 육상 수송의 덕택으로 재화와 인구의 원활한 이동이 이루어 질 수 있었고, 새로운 지역에서 풍부한 천연 자원이 유입되면서 국제교역이 확장되었으며, 유럽은 산업발전과 인구증가 등으로 야기된 원료 부족과 식량 생산의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1차 원료에 대한 계속적인 수요와 자본 및 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해 이들 주변국이었던 인구 유입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는데, 그 두드러진 발전을 보인 나라들이 바로 미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캐나다, 우루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라 하겠다.

2) 19C 초의 아르헨티나 상황과 移民流入의 필요성 인식

식민지 초기부터 19C 중반에 이르기까지 현 아르헨티나 지역은 낮은 인구밀도와 함께 그 발전 또한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희소한 인구로 인해 “개방된 공간(Espacios abiertos)”을 이루었던 이 지역은 비록 그 땅이 비옥했어도 그들에게 별 의미가 없었으며, 목축 또한 원시적이고 초보 단계에 있었으므로 경제의 중심으로 작용할 만한 매력을 갖지 못하였다.

18C 말 라플라타江(Río de la Plata)지역을 중심으로 副王領이 조직되면서,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포토시(Potosí : 현 볼리비아에 속하는 옛날의 광산 경제권)와 스페인 본국 간의 무역을 위한 중개지로서 개발되기 시작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다른 유럽국가와도 무역을 시작하였다. 즉 풍부한 목초지를 배경으로 점차 목축업이 발달하고 가축의 잉여 생산으로 인해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중

심으로 유럽으로의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어 포토시의 은생 산이 감소되고 알토 페루(Alto Perú : 오늘날의 볼리비아)지역의 분리로 인해 포토시 경제가 약화됨에 따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주 수출품은 가죽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약한 인구를 가졌지만 체계적인 목축업의 시작은 이 지역에서 최초의 자원 이용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는데, 이에 따라 가죽과 더불어 脂肪과 油脂가 유럽으로 수출되었고, 브라질과 쿠바의 흑인 노예들을 대상으로 포육이 수출되었다.

한편 牧牛와 더불어 1840년에 이르러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평원에 羊牧畜業이 성행하게 되었는데, 초창기 유럽이민자들에 의한 신기술의 도입에 의해 가속화된 羊毛輸出은 이제 가죽수출을 능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C 중반 이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港이 개방되면서 육류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옛 원주민들이 거주했던 살라도江(Salado) 남부의 비옥한 목초지대를 통합하는 것을 중심으로 국경에 대한 개념이 생겨났다.

1870년 경에는 판파지역(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충적토질로 되어 있어 비료의 사용이 없이도 영농할 수 있는 곳이다. 즉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市를 둘러싸고, 북, 서, 남쪽으로 반경 약 100km의 부채꼴로 펼쳐져 있는 이 판파지역은 전 국토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크기는 영국과 이탈리아를 합한 넓이 정도로 총 60만km²이며, 아르헨티나를 富國으로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되고 있다)의 내부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으며, 그 때까지 생산적인 면에서 별 관심을 끌지 못했던 빠타고니아(Patagonia), 차코(Chaco) 등지는 판파지역의 외곽에 위치해 있어 안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짐으로써 1879년 軍의 작전 개입으로 1880년에는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확보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광대한 영토의 안보를 위해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했으며, 더구나 개발되고 있지 않았던 자원을 생산체제로 이끌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치밀하고도 꾸준한 이민유도 정책을 펴게 되는데, 생태·지리학적인 면에서 온대기후권으로 농목축업에 최적지인 이곳은 유럽국가들, 특히 영국인들에 게 큰 매력을 주었으며, 186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지역에서의 인구밀도가 100ha당 1명을 초과하지 못하여, 목축업은 물론 농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있던 이 지역에 대한 유럽인구의 대규모 유입은 결국 아르헨티나 형성에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3) 아르헨티나 정부의 移民流入을 위한 노력

독립 이후 1829년에 이르기까지 아르헨티나는 적극적으로 유럽인들의 이민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법령과 정책을 세웠으며, 베르나르도 리바다비아(Bernardo Rivadavia)와 같이 주변지역에 대한 정복 사업과 유럽인구의 유입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많았으나, 로사스(Rosas)의 독재집권(1829~32, 1835~52) 기간에 해외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아르헨티나 内外國人들의 해외로의 유출이 많아져, 1830년에서 1850년에 걸친 시기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유럽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여 성공을 거둔 반면,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이민인구를 통한 발전이 중단되었었다.

그러나 로사스의 독재정치가 끝난 1852년 이후, 리바다비아의 정책이 다시 대두되면서 이민은 연방정부와 부에노스 아이레스 당국의 확고한 비호를 받고 적극 추진되었으며, 알베르디(Alberdi), 사르미엔토(Sarmiento), 아베야네도(Avellaneda), 미트레(Mitre) 등과 같은 정치사상가들은 인구유입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삼았다. 이들 중 대표적 인물로는 알베르디를 꼽을 수 있는데, 그는 그의 대표적 저서인 *Bases*에서 “인구를 증대시키는 것이 곧 통치하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사용하였다. 그의 사상은 나라의 유럽화를 통해 경제, 산업, 문화적 발달을 가져와야 하며, 이를 위해선 단 하나의 요소인 유럽이민을 많이 유입해야 한다는 것이다.²⁾

1853년 5월 1일 공포된 국가 헌법은 이같은 사상을 25조에 담고 있다. 헌법 25조에서는 토지를 경작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며 과학과 예술분야에 종사할 유럽 이민과 소수 기타 지역 이민자들을 선호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리스·로마 문화의 계승자인 유럽인이 가장 적합한 移民者로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헤르마니(G. Germani)는 당시 이민 유입의 목적을 둘로 보고 있는데, 첫째는 광활한 영토에 移民者를 정주시키는 것이고(“Poblar el desierto”), 둘째로는 인구의 사회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전통적 사회 구조에서 근대적 사회 형태로의 전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통적 경제구조로부터 탈피하여 근대적 경제구조를 구축하여 아르헨티나 경제를 세계 경제로 통합시키는 것이다.³⁾

1876년 10월 19일 유럽인의 이민을 권장하는 획기적인 법령이 발표되면서 아르헨

2) Alberdi, J.B., *Bases y punto de partida para la organiza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Argentina*, Bs. As., Ed. Francisco Cruz, 1914, p.18.

3) G. Germani, *Política y Sociedad en una época de transición*, Cap. 7, Bs. As., Paidós, 1962, p.221.

Salvador Canals Frau, “La inmigración europea en la Argentina”, *Anales del Instituto Etnico Nacional*, Vol. 1, Bs. As., 1948, pp.91-92.

티나에 移民局이 조직되었고, 이를 통해 이민에 대한 실제업무와 이민자들의 편의를 제공케 하였다.

1880년 경에는 또한 아르헨티나 내륙지역에 대한 정복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이민자의 안전한 정착이 확보되었고, 본격적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880년까지의 기간을 광활한 아르헨티나 지역의 초기 이민 단계로 보며, 이 시기에 농업, 목축업 및 運送網의 기본틀이 형성되었고, 그를 바탕으로 1880년 후에는 농목축업에 있어 대량생산과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 본 논문의 목적은 1870년부터 1914년까지 계속된 아르헨티나의 경제발전에 유럽인의 이민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가를 분석해 보는 데 있다.

4) 유럽이민과 아르헨티나

19C 중반 경에 발생한 유럽이민 送出은 1914년에 年 150만명에 달한다. 또한 이 시기 동안에 國際移民 流動人口數는 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 혹자는 기록된 移民者는 4,600萬名에 달하며, 반면에 기록되지 않은 移民者까지 포함하면 5,15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은 이민에 대한 국가별 해석이 다르고, 또한 많은 이민자가 19C 말에 海上運送의 발달로 운송 요금이 싸지면서 수확기에 他國과 自國間의 이동이 수월해져 永久移民者 수에 비해 전체 이민자 수는 과장되어 있음직 하다.⁴⁾

여기에서는 연대별로 특정 국가에 관한 移民 送出 및 受民에 대한 가장 훌륭한 수치를 계산해 낸 Green과 Urquhart, 그리고 Ferenczi와 Wilcox의 통계를 이용한다.

유럽으로부터의 移民 送出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국가별로 본다면 영국은 1880년대 이후에 송출 규모에 있어 그동안 유지해 왔던 중요한 移民 送出國의 위치를 20C 초에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에 의해 추월 당한다.

세계 1차 대전 발발까지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중요한 대서양 이민 송출국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북아메리카에서 인구 구성면에 있어 이탈리아인과 오스트리아—헝가리인의 수적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인과 대다수의 스페인인을 유입한다.

4) C. Díaz Alejandro, *Essays on the Economic History of the Argentina Republic*,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0, p. 22.

〈도표 1〉 유럽이민 송출국 현황

	영국 및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독일
1871~ 75	544	95	329	—	—	75	394
1876~ 80	425	71	213	—	544	58	232
1881~ 85	760	133	399	—	771	85	858
1886~ 90	783	141	335	397	1,110	105	485
1891~ 95	619	100	259	391	1,283	158	402
1896~1900	478	85	201	397	1,552	112	117
1901~ 05	773	163	235	349	2,770	127	146
1906~ 10	1,102	294	249	714	3,527	198	134
1910~ 14	961	248	162	731	2,597	253	80
Total	6,445	1,330	2,382	2,979	14,154	1,171	2,848
	프랑스	오스트리아—헝가리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	총계
1871~ 75	35	52		65	45	—	1,634
1876~ 80	18	47	15	85	40	—	1,748
1881~ 85	25	98	78	—	106	—	3,313
1886~ 90	93	126	142	67	81	—	3,865
1891~ 95	27	155	159	162	61	280	4,056
1896~1900	24	201	158	87	35	201	3,648
1901~ 05	24	464	550	148	103	420	6,262
1906~ 10	29	640	685	110	87	484	8,253
1910~ 14	20	417	409	71	40	414	6,403
Total	295	2,148 (52)		795	598	1,799	39,192

註 : Imre Ferenczi y W.F. Wilcox, *International Migrations*, Vol. 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ew York, 1929.

한편, 유럽의 送出 인구에 대한 受民國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이 시기 동안 미국은 주요 受民國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는데, 이는 특히 1880~1900년대에 캐나다의 미국에 대한 “imán(매력)”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캐나다에서 밀 생산이 호조를 보이면서 점차 이민자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호주는 1890년대의 계속된 가뭄으로 이민자의 수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의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 있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이민자 비율을 보면 1911년에 캐나다는 22%, 1910년에 미국은 15%(백인계만 계산), 1921년에 호주는 15.5%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1914년에 30.3%를 보임으로써, 전체 인구에 대한 외국인 점유 비율을 보면 아르헨티나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⁵⁾

5) Ferenczi y Wilcox, *International Migrations*, Vol. II, National Bureau of Economic

〈도표 2〉 아르헨티나 및 비교 국가들의 순수 이민자 수 (단위: 천)

년	미 국	카 기 다	호 주	아르헨티나
1870~ 80	2,269	-85	192	85
1880~ 90	4,492	-205	383	638
1890~1900	2,532	-181	25	320
1900~1910	5,285	716	41	1,120
1910~1920	3,197	237	208	269
Total	17,775	516	849	2,432

註: A. Green y M. Urquhart "Factor and Commodity flows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36, 1976, pp.217-252.

〈도표 3〉 송출국과 수민국의 이민자 구성비

송 출 국	%	수 민 국	%
영 국	33.7	미 국	61.1
이 태 리	18.8	카 나 다	11.5
오스트리아—헝가리	9.8	아르헨티나	10.1
독 일	9.2	브 라 질	7.3
스 페 인	8.6	남아프리카	2.2
러 시 아	4.2	뉴 질 랜드	3.0
포르투갈	3.4	호 주	4.5
스 웨 덴	2.2		
기 타	7.9		

註: Gerald M. Meier y Robert E. Baldwin, *Economic Development, Theory, History, Policy*, New York, 1959, pp.216-217.

위의 도표에서 1871~1914년 동안 移民 送出國과 受民國의 지형학적 분포를 보면, 영국이 가장 큰 移民 送出國이며 뒤이어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수민국 중에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 아르헨티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전체 이민 송출의 55%가 유럽의 북서와 북동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남서와 동부지역은 35%를 점유하고 있다.

유럽의 북서 지역은 당시에 이미 공업화과정의 시작되었으며 사회, 정치 그리고 교육에 있어 크나큰 변모를 보이고 있었던 반면에 남동부 지역은 농목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 정치, 사회면에 있어서도 발달이 되지 못하

〈도표 4〉 유럽 이민자의 지역별 구성비 (%)

이민출처	1846~50	1851~60	1861~70	1871~80	1881~90	1891~900	1901~910	1911~20
유럽의 북서지역	99	96	94	65.4	52.5	37.2	30.9	35.2
유럽의 남동지역	1	4	6	34.6	48.5	72.8	69.1	64.8
총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註: W.S. Woytinsky y E.S. Woytinsky, *Worked Population and Production, trends and outlook*, 1953, p. 76.

었다.⁶⁾

위의 도표는 더욱 분명하게 유럽 이민 송출자들에 대한 유럽의 북서지역과 남동 지역의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유럽 북서 지역의 송출 규모는 1870년 이후 급속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유럽 남동 지역의 송출 규모는 1870년 이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서 지역은 산업혁명 이후 계속되는 국가경제의 발달로 移民 排出要因이 크게 줄어 든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남동 지역은 해상운송의 발달로 여행 기일이 크게 단축되면서 계절이민(혹은 철새이민: la golondrina)이 크게 가능해 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통계 수치를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아르헨티나에서 대규모 유럽 이민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국토의 대정벌이 끝난 1880년대 이후 유럽의 북서 지역보다 남동 지역으로부터의 이민 유입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될 수 있겠다.

첫째, 送出國과 受民國간의 관계이다. 즉 영국인은 미국을 선호하고 있고, 스페인인은 아르헨티나 그리고 포르투갈은 브라질 선호의 경향이 있다.

둘째, 미국에서 성공한 대다수의 이민자들은 북서 출신이다. 미국이 대규모로

〈도표 5〉 아르헨티나에 있어 유럽 지역별 출신 분포도 (%)

年	N.O.	S.E.	기	타
1880~ 85	19	80		1
1885~ 90	22	75		3
1890~1909	8.6	86		5.7

註: Juan A. Alsina, *La inmigración en el primer siglo de la Independencia*, 1910, p. 22.

6) Gerald M. Meier, Robert E. Baldwin, *Economic Development, Theory, History, Policy*, N.Y., 1959, pp. 216-217.

〈도표 6〉 아르헨티나의 국적별 외국인 수와 점유비 (단위: 천, %)

국 별	1869		1895		1914	
이 태 리	71.4	35.4	492.6	50.1	929.9	40.6
스 페 인	34.1	16.9	198.7	20.2	829.7	36.3
프 랑 스	32.4	16.0	94.1	9.6	79.5	3.5
영 국	10.7	5.3	21.8	2.2	27.7	1.2
스 위 스	5.8	2.9	14.8	1.5	14.3	0.6
독 일	5.0	2.5	17.1	1.7	26.0	1.1
러 시 아	—	—	15.0	1.5	93.6	4.1
오스트리아—헝가리	—	—	12.8	1.3	38.1	1.7
시리아—레바논	—	—	—	—	64.4	2.8
인 집 국 가	42.1	20.0	115.9	11.9	185.0	8.1
총	201.5	100	982.8	100	2,288.2	100

* 대부분은 유대인계 이민업

註: Los Censos de 1869, 1895, 1914.

이들 유럽의 북서 지역 이민을 받아들인 시기(1830~1857)에 아르헨티나는 로사스(Rosas) 독재정권하에서 이민에 대한 문호를 폐쇄하였다.⁷⁾

〈도표 7〉 1914 년 아르헨티나 거주 외국인의 국별 분포도

이 탈 리 아	929,863	39.44%	루 마 니 아	2,105	0.09%
스 페 인	829,701	35.19%	기 타 유 럽 人	4,020	0.17%
프 랑 스	79,491	3.37%	불 가 리 아	17,993	0.76%
영 국	27,692	1.17%	브 라 질	36,442	1.55%
독 일	26,995	1.14%	칠 레	34,217	1.45%
러 시 아	93,634	3.97%	우 루 과 이	86,428	3.67%
스 위 스	14,345	0.61%	파 라 과 이	28,049	1.19%
오스트리아—헝가리	38,123	1.62%	기타 아메리카人	6,808	0.29%
벨 기 에	4,865	0.21%	오 토 만	64,369	2.73%
네 델 란 드	3,421	0.15%	기타 아시아人	2,180	0.09%
포르 투 갈	14,143	0.60%	아 프 리 카	1,839	0.08%
스 웨 덴	1,303	0.06%	미 분 류	338	0.001%
덴 마 크	3,872	0.16%			
그 리 스	5,716	0.24%		2,357,952	100%

註: Collins, Edgar W., "Desarrollo y distribución de la inmigración", *Revista de la Facultad de Ciencias Económicas, Comerciales y Políticas*, Rosario, tomo 1, n° 3, sep.-dic., 1942, p.846.

7) Oscar, E. Cornblit, Ezequiel Gallo y Alfredo O'connel, "La generación del 80 y Su Proyecto: Antecedente y Consecuencias", *Rev. Desarrollo Económico*, Vol. 1, N°-4, 1962, p.15.

이후 계속되는 대규모 유럽 이민의 유입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에서는 점차 외국인 점유 비율이 높아져 가는데 이를 3차에 걸친 국가 센서스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로의 유럽 이민은 대다수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부터 이주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유럽 이민자를 포함시킨다면 전체 이민자의 약 90%가 유럽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스페인 이민자 수는 1905년 이후 이탈리아 이민자 수와 거의 비슷해지다가 제 1 차대전 발발 직전에는 앞서게 된다.

5) 아르헨티나로의 移民 送出國 비교 분석

(1) 이탈리아

아르헨티나로의 이탈리아 이민은 1870~80年代의 農業危機時代에 시작되어 20C 초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이는 自由貿易主義에 의한 세계곡물시장에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국제가격의 하락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1872~1900년의 29년간의 인구성장률은 완만한 증가(1872~1875년은 0.6%, 1896~1900년은 1.1%⁸⁾)를 보이나, 土地耕作面積의 정체 현상(옥수수 경작 면적은 불과 연 0.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밀 경작 면적은 0.08%의 증가를 보였⁹⁾)으로 인하여 해외로의 송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들 이탈리아 이민을 출신 지역별로 본다면 다음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C 말까지는 북쪽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20C에 들어서는 남쪽 출신들이 보다 많아지고 있다. 이들 중에서 북부의 피아몬테(Piamonte)가 전기간을 통해 가장 큰 이민 집단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에 들어온 첫 이탈리아 이민은 제노바(genoveses) 출신의 바닷사

〈도표 8〉 아르헨티나 거주 이탈리아인의 출신지역 비교(%)

	1875~ 1880	1881~ 1885	1886~ 1890	1891~ 1895	1896~ 1900	1901~ 1905	1906~ 1910	1911~ 1914
北	68.3	69.3	60.2	54.7	38.7	34.3	31.9	34.9
中 央	3.2	6.6	8.3	9.2	13.9	15.8	13.2	12.1
南	28.5	24.1	31.5	36.1	37.4	49.9	54.9	53.0

註 : Vicente Vázquez-Presedo, *El Caso Argentino*, Eudeba, p. 101.

8) Italia, Min. de Agricultura, Industria e Comercio, Dir. Gral. della Statistica, *Anuario Statistico Italiano*, 1904, p.95.

9) R. Foerster, "Italian emigration of our times," *Economic Studies*, N° 30, Ha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24, p.253.

람과 농부들 이었다.¹⁰⁾ 이들은 1870년대에 약 5,000명에 달했는데 주로 선박제조와 더불어 아르헨티나의 강과 바다에서의 교역을 독점하였다.

보편적으로 북부지역 출신들은 아르헨티나에서 토지를 경작하는 데에 열심이었으나, 반면에 남부 출신들은 대도시에 정주하거나 혹은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였다. 특히 북부 출신중에 빼아몬테인들은 거친 일을 마다 않으며 토지를 경작하고 씨를 뿌려 쌀, 포도, 과일, 야채 등을 수확하는 생산성을 지닌 사람으로 비추어 졌으며, 롬바르도(lombardo)인들 역시 농촌에서 일하면서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심이였다.¹¹⁾

한편 철새("golondrina")이민자들이 증가하는데, 이들은 10월이나 11월에 수확이 끝난 이탈리아를 떠나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Córdoba)와 산타 페(Santa Fe) 등지에서 밀과 亞麻의 수확을 거둬 주고 후에 12월~1월에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방으로 이동하여 일한 다음에 다시 대서양을 건너 귀국하게 되는데, 이 때 이들의 주머니에는 400 리라가 들어 있게 된다.¹²⁾

20C 초부터 크게 늘어나는 남부 지역 이민자들은 주로 외국인 점유 비율이 높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도시들에 집중하여 생활터전을 잡았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대다수가 농업활동에 종사하였고,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타 국가들의 이민자와는 달리 쉽게 동화함으로써 아르헨티나에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2) 스페인

스페인인은 예로부터 農牧經濟構造에 의존하고 있다. 1860년 이후 경작물의 다양화로 포도, 올리브, 과일같은 農產物生産이 크게 증대하면서 국가의 주요 산품이 되었다. 그러나 19C 중순 프랑스와 스페인에 연이어 발생한 la filoxera(포도나무의 뿌리에 붙는 해충)로 포도주산업이 쇠퇴하게 되면서, 동시에 전통적 주요 산품인 밀과 쌀 역시 유럽에서의 가격하락과 싸워야 했다.¹³⁾

19C 말 유럽 경제가 서서히 부흥의 길을 걸을 때 스페인은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와 철광, 포도주수출의 급격한 감소로 농업과 공업을 비롯한 전반적 산업 부문이 쇠퇴하면서, 그리고 인구의 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는 현상을 보인다.

10) Ibid. p.253.

11) Sagastume, P., *La inmigración, su influencia en el país*, La Plata, 1916, pp.73, 89.

12) 아르헨티나에서 1888년의 경우 이런 종류의 일에 일당 5-6 liras를 제공하였다. 1£=5 pesos fuertes=25 liras.

13) J. Vicens Vives, *Historia de España y América*, Barcelona, 1961, pp.298-306.

Dirección General del Geográfico y Estadístico, *Estadística de la Emigración e Inmigración de España, 1882~1890*(Madrid, 1891); 1895 (Madrid, 1898); 1900 (Madrid, 1903); 1904~95, 1910, 1913(Madrid, 1914).

이후 1898년 파리 조약으로 인해 최후의 해외 식민지로 남아 있던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을 잃게 된다. 쿠바는 90년대까지 스페인 이민자들이 가장 선호했던 나라이다. 20C에 들어 오면서는 아르헨티나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이어서 쿠바, 브라질 순이 되었다.

스페인 移民 送出의 가장 큰 이유로는 기회(Oportunidades)의 불균등을 들 수 있다. 스페인의 남부와 서부, 즉 안달루시아(Andalucía)와 에스트레마두라(Extremadura)에서는 大土地所有制가 번성하여 많은 사람들은 토지의 부족을 겪게 되고 또 잉여 노동력은 보다 안정된 일을 찾아 프랑스나 아프리카북부 그리고 후에는 아메리카로 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욱 심한 곳은 갈리시아(Galicia)지방으로서 인구의 성장과 더불어 손수

〈도표 9〉 아르헨티나 거주 스페인인의 출신지역 분포

年	Pontevedra 폰테베드라	La Coruña 라 코루냐	Barcelona 바르셀로나	Málaga 말 라 가	Oviedo 오 비 에 도	Lugo 루 고
1885	5,522	1,555	637	...	191	177
1886	1,672	1,837	1,010	...	489	193
1887	3,294	4,094	844	...	954	891
1888	5,094	1,738	2,178	...	1,650	592
1889	5,940	4,105	2,584	10,141	7,140	990
1890	2,240	1,381	812	189	1,393	199
1891	717	592	495	9	164	138
1892	1,573	757	496	61	227	96
1893	2,274	1,415	679	3	369	184
1894	2,782	1,470	562	14	362	256
1895	2,863	2,108	292	15	509	305

年	Baleares 발레아레스	León 레 온	Cádiz 까 디 스	Canarias 카나리아스	Orense 오 렌 세	총 계
1885	110	106	96	84	...	6,132
1886	183	273	67	266	...	6,973
1887	73	263	81	522	872	13,286
1888	250	634	452	679	436	21,873
1889	2,335	1,074	5,755	1,027	584	57,152
1890	121	358	397	123	160	9,038
1891	41	407	180	32	65	3,170
1892	35	80	164	18	96	4,385
1893	87	100	197	30	252	6,560
1894	65	95	314	59	186	6,917
1895	33	154	84	161	312	7,582

註 : Dirección General del Instituto Geográfico y Estadístico, *Estadística de la emigración de España*, 1885~1890(Madrid, 1891~95(Madrid, 1898)

진 크기 정도의 조그마한 땅 (“Parcelas pequeñas como pañuelos)을 소유할 수밖에 없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그리고 아메리카로 발길을 돌렸다.

아르헨티나로의 스페인 이민은 어떤 큰 기대는 가지지 않은 채, 일부는 좀 더 편안한 생활과 富를 얻기 위한 기회로 여겼으며, 또 다른 부류는 거친 일을 마다 않고 일하며 아메리카의 자유를 회구하였다. 많은 이민자들은 도시에 정주하였으며 또 일부는 농촌에 정주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 스페인 이민자들은 대학에서, 정치에서, 무역에서, 산업분야에서 그리고 교육과 언론계에서 헌신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정일과 빠(bares)의 종업원으로도 일하였다.¹⁴⁾

갈리시아 출신들은 특히 거칠고 힘든 모든 일에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며, 반면에 까탈란인들(catalanes)은 무역과 自營工業(도자기, 직물, 연장, 세공, 과자 등)에 종사하였다. 극소수의 까탈란인들은 牧業에도 종사하였다. 바스크인들(vascos)은 거친 일에 끈기와 응용력을 보여 주었는데 이들은 관개시설을 갖추고, 따가운 태양 아래서 벽돌을 쪼개며, 젖을 짜고, 달구지꾼 혹은 소몰이꾼으로서 그리고 牧畜을 돌보는 일 등에 노동력을 제공하였다.¹⁵⁾

이와 같이 스페인인들은 이탈리아인들과 같이 빠른 동화와 인구 증가에 기여하면서 아르헨티나의 번영에 깊이 참여하였다. 특히 스페인인들은 아르헨티나의 독립시기(1810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14개 지역에 있는 유럽인을 국적별로 보면 스페인인이 1,570명 ; 프랑스인 13명 ; 영국인 124명 ; 이탈리아인 61명 ; 포르투갈인 198명 ; 국적 미분류의 유럽인 292명)¹⁶⁾로부터 후에 1876년 移民保護法이 제정되는 시기까지 이민 통계 수치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아르헨티나의 경제, 사회 발전에 핵이 되어 왔다.

(3) 영 국

영국은 계속되는 인구증가와 공업화에 의해 이민이 발생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미국으로(1850년에 미국에서 이민자의 9/10는 영국, 아일랜드, 독일 출신이었다) 건너 갔으며, 1851년에는 골드러시로 인하여 호주로 집중되었고 그밖에 뉴질랜드와 남아프리카로도 집중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 전체 이민자 중에서 차지하는 영국 이민자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14) Antoni Guffanti, “La inmigración como problema social argentino”, *Rev. de la Facultad de Ciencias Económicas Comerciales y Políticas*, Rosario, 4ª serie, t. 1, n° Z, mayo/agosto, 1942, p.542.

15) Sagastume, J.P., *op. cit.*, pp.45, 51, 60.

16) Alsina, J.A., *La inmigración en el primer siglo de la independencia*, Bs. As., Ed. Felipe Alsina, 1910, p.145.

이들은 자본을 소지한 특출한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아르헨티나에 정착하게 되고 일부는 토지매입 등에 나선다. 순수한 이민 목적으로 온 영국인들은 본국의 관습과 기호에 젖어 있어 아르헨티나의 양식과 의류의 높은 가격에 곤란을 겪는다. 예로 숙련 노동자가 월 100페소스 오로(pesos oro 약 20鎊)를 받는데 이는 영국에서는 의·식·주 해결에 충분한 돈이나 아르헨티나에선 저축은 커녕 적절한 생활 유지도 곤란하였다.

즉 아르헨티나가 영국인에게 매력을 주지 못한 이유로는 기후, 언어, 관습, 종교, 토지 매입에 따른 낙장과 불안, 인디언들의 침략, 정부군 및 반란군들에 의한 재산 몰수에 대한 염려 그리고 운송과 커뮤니케이션의 결여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¹⁷⁾

그러나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영국 이민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보여 주었는데 첫째, 아르헨티나의 1차 수출경제구조와 관련된 무역 및 금융부문을 지배하였고 둘째, 목축업 특히 질 좋은 양모의 채취와 사육 면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 주었으며 세째로는, 철로, 도로, 공공 사업, 냉동업 등 기술적인 분야에서 또는 기업의 매니저로서 각각 영향을 끼쳤다.¹⁸⁾

이들 영국인의 대부분은 1889~1902년의 보어전쟁 이후 남아프리카에서 이동해 왔으며, 1914년에 약 30,000명이 아르헨티나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들 영국인으로 분류된 자들 중에는 소수의 스코틀랜드인과 아일랜드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부유한 가문 중에 스코틀랜드 이름인 Gibson, McLoughlin, McDonald, Bell, McIntosh, Munro와 아일랜드 계인 Duggan, Healy, Casey, Feexey, Morgan, Murphy, Glew 등의姓을 지닌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4) 기 타

프랑스인들은 그들의 높은 교육수준으로 인하여 아르헨티나에서 통계 수치 이상의 중요성을 지닌다. 이들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투자자금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기술 부문에서 우위를 차지하였다. 철로, 항만, 기업 등에서 프랑스인들이 끼친 영향은 컸으며, 이외에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그들의 공헌도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벨기에는 숫자 면에서 보잘 것 없으나 이들 유입된 대부분의 벨기에인들은 당시 아르헨티나가 바라고 있었던 훌륭한 농업이민자였다.

17) Vicente Vázquez-Presedo, *El caso argentino*, Argentina, Eudeba, 1971, p.116.

18) H.S. Ferns, *Britain and Argentina in the nineteenth century*,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60, pp.373, 374, 447.

Alois, E. Fliess, *La Producción agrícola*, p.105.

J.A. Hammerton, *The Argentine Through English Eyes*, London, 1914, pp.206-216.

非라틴계인으로서 단연 독일이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근면하고 치밀하며 또한 현명하여 아르헨티나 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 주로 제조업, 電力發電用 機械類, 건축업, 技術用役 등에서 그들의 자립정신을 발휘하였다.

스위스移民은 19C 중반에 소수가 들어 왔으나 그나마 1890년 이후 크게 감소한다. 유럽의 가장 발달된 지역에서 온 이들은 주로 산따 웨 남부에서 농업 활동을 영위하였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인들은 역시 소수가 들어와 산따 웨와 엔프레 리오스(Entre Ríos)지방에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일부는 도시에서 크고 작은 규모의 무역업에 종사하였다.

6) 이민자들의 地域別 分布圖와 集團移住地(Colonia)의 정착화

(1) 지역별 분포도

다음의 세 도표를 분석해 보면 외국인의 높은 비율이 주로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방, 산따 웨 그리고 이어서 코르도바(Córdoba), 멘도사(Mendoza), 엔프레 리오스 지방에서 보여지고 있다.

수도는 1870~1914년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높은 외국인 점유비율을 보여주었는데, 1914년에는 전체 주민의 49.3%가 외국인이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지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놓여 있어 일찍부터 목축업이 발달하였으며, 후에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여 농업 역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여러 지방 중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단연 인구면과 발전면에서 앞서 나갔다.

산따 웨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이어 목축업이 발달하였고 밀 수출 시대를 주도하였으며, 농업 이민에 의한 최대 규모의 농업경작지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 산따 웨가 부에노스 아이레스보다 적은 수의 이민을 유입했지만 1895년과 1914년에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은 산따 웨가 더 크게 되었다.

코르도바는 아르헨티나 중앙 철도(El Ferrocarril Central Argentino)가 1914년 경 남부 지방을 통과하게 되면서 팜파의 새로운 지역으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코르도바는 1895년과 비교하여 1914년에 가장 높은 외국인 인구증가율을 보여 주었다.

이 외에도 투쿠만(Tucumán)은 설탕산업으로, 멘도사와 산 후안(San Juan)은 포도작물과 포도주로 각각 토지의 활용과 인구 유입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즉 외국인 인구의 지형학적 분포는 해안지역으로부터 점차 라 팜파(La Pampa) 지역으로 그리고 중서부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도표 10〉 아르헨티나 거주 외국인의 주별 분포 (단위: 천)

지 방	이태리人	스페인人	프랑스人	영국人	독일人	러시아人	총 계
Capital Federal	42.0	13.9	13.4	3.1	2.0	—	88.1
	181.7	80.4	33.2	6.8	5.3	—	345.5
	312.3	306.9	27.9	9.2	10.9	28.8	777.8
Buenos Aires	18.7	14.4	13.7	6.1	1.2	—	63.1
	140.2	70.0	35.1	8.8	3.2	—	284.3
	285.0	273.8	30.3	9.4	6.1	22.3	704.1
Santa Fe	4.2	1.6	1.7	0.7	1.1	—	13.9
	109.6	21.2	10.3	2.9	4.5	—	166.5
	164.7	84.8	6.9	3.6	4.0	11.0	315.9
Entre Ríos	4.3	3.0	2.4	0.5	0.4	—	18.4
	21.0	6.4	4.8	0.7	1.8	—	63.9
	16.3	7.4	2.4	0.5	1.2	17.7	72.5
Corrientes	1.5	0.4	0.5	0.1	0.1	—	8.9
	3.5	1.5	0.8	0.2	0.3	—	21.9
	3.4	3.2	0.5	0.2	0.3	0.3	25.0
Córdoba	0.4	0.2	0.3	0.2	0.0	—	1.7
	22.2	5.4	2.7	0.5	1.1	—	35.5
	83.3	42.1	3.8	1.1	1.4	2.2	150.4
San Luis	0.0	0.0	0.0	0.0	0.0	—	0.5
	0.8	0.6	0.3	0.0	0.0	—	2.1
	3.9	3.7	0.4	0.2	0.1	0.2	10.0
Santiago del Estero	0.0	0.0	0.0	0.0	0.0	—	0.1
	1.1	0.5	0.3	0.0	0.0	—	2.3
	2.0	3.6	0.2	0.1	0.1	0.8	9.5
Tucumán	0.0	0.0	0.1	0.0	0.0	—	0.4
	3.3	4.0	1.4	0.2	0.3	—	10.6
	7.8	15.7	0.8	0.2	0.4	0.8	32.6
Mendoza	0.1	0.1	0.0	0.0	0.0	—	6.1
	4.1	2.8	2.5	0.1	0.2	—	15.9
	28.6	41.5	2.7	0.4	0.5	0.9	88.3
San Juan	0.1	0.0	0.0	0.0	0.0	—	2.3
	0.9	1.0	0.8	0.0	0.1	—	5.3
	2.1	10.7	0.4	0.0	0.1	0.2	16.4
La Rioja	0.0	0.0	0.0	—	—	—	2.7
	0.2	0.1	0.1	—	—	—	0.8
	0.4	0.3	—	—	—	—	1.0
Catamarca	0.0	0.0	0.0	—	—	—	0.4
	0.3	0.2	0.1	—	—	—	1.1
	0.5	0.7	0.0	—	—	—	2.3
Salta	0.1	0.0	0.0	0.0	0.0	—	2.9
	0.7	0.4	0.1	0.0	0.1	—	4.5
	1.7	4.0	0.2	0.0	0.1	—	11.8

Jujuy	0.0	0.0	0.0	0.0	0.0	—	0.3
	3.0	0.2	0.1	0.0	0.0	—	4.6
	0.6	1.9	0.1	0.3	0.1	0.1	17.1

註 : Vicente Vázquez-Presedo, *op. cit.*, p. 124.

〈도표 11〉 아르헨티나 거주 외국인의 주별 분포도(%)

지 방	이태리人	스페인人	프랑스人	영국人	독일人	러시아人	총 계
Capital Federal	23.6	7.8	7.5	0.2	0.1	—	49.5
	27.3	12.1	4.9	1.0	0.8	—	52.0
	19.8	19.4	1.8	0.6	0.7	1.8	49.3
Buenos Aires	5.9	4.5	2.1	2.0	0.4	—	19.8
	15.2	7.6	3.8	1.0	0.3	—	30.8
	13.8	13.2	1.5	0.5	0.3	1.1	34.0
Santa Fe	4.7	1.8	1.9	0.8	1.2	—	15.6
	27.6	5.3	2.6	0.7	1.1	—	41.9
	18.3	9.4	0.8	0.4	0.4	1.2	35.1
Entre Ríos	3.2	2.2	2.2	0.4	0.4	—	13.6
	7.2	2.2	1.6	0.2	0.6	—	21.8
	3.8	1.7	0.6	0.1	0.2	4.1	17.0
Corrientes	1.1	0.3	0.4	0.1	0.1	—	6.8
	1.5	0.6	0.3	0.1	0.1	—	9.1
	1.2	1.2	0.2	0.1	0.1	0.1	7.0
Córdoba	0.2	0.1	0.1	0.1	0.0	—	0.8
	6.3	1.5	0.8	0.1	0.3	—	10.1
	11.3	5.7	0.5	0.1	0.2	0.3	20.4
San Luis	—	—	—	—	—	—	1.0
	1.0	0.7	0.3	—	—	—	2.5
	3.3	3.1	0.3	0.2	0.1	0.2	8.5
Santiago del Estero	—	—	—	—	—	—	0.1
	0.7	0.3	0.2	—	—	—	1.4
	0.8	1.4	0.1	—	—	0.1	3.6
Tucumán	—	—	0.1	—	—	—	0.3
	1.5	1.8	0.7	0.1	0.2	—	4.9
	2.3	4.7	0.2	0.1	0.1	0.2	9.8
Mendoza	0.2	0.2	0.2	—	—	—	9.4
	3.5	2.2	2.2	0.1	0.2	—	13.6
	10.3	14.9	1.0	0.2	0.2	0.4	31.8
San Juan	0.1	—	—	—	—	—	3.8
	1.1	2.3	1.0	—	0.1	0.2	13.7
	1.8	8.9	0.3	—	0.1	0.2	13.7
La Rioja	—	—	—	—	—	—	0.5
	0.3	0.2	0.2	—	—	—	1.2
	0.5	0.4	—	—	—	—	2.0

Catamarca	—	—	—	—	—	—	2.5
	0.2	0.1	0.1	—	—	—	1.1
	0.3	0.4	—	—	—	—	2.2
Salta	1.1	—	—	—	—	—	3.3
	0.6	0.3	0.1	—	0.1	—	3.8
	1.2	3.0	0.2	0.0	0.1	—	8.4
Jujuy	—	—	—	—	—	—	7.5
	0.6	0.4	0.2	—	—	—	9.3
	0.7	2.0	0.1	0.4	0.1	0.1	22.3

 註 *Ibid.*

〈도표 12〉 아르헨티나의 주요 주별 전체주민과 외국인의 분포 및 비율

지 방	도시 인구를			주별 주민 분포		
	1869	1895	1914	1869	1895	1914
全 國	28	38	53	100	100	100
Capital federal	100	100	100	10.7	16.7	20.0
Provincias: Buenos Aires	17	35	54	17.6	23.2	26.2
Santa Fe	38	33	47	5.1	10.1	11.4
Entre Rios	37	31	38	7.7	7.4	5.4
Corrientes	16	24	32	7.4	6.0	4.4
Córdoba	20	19	41	12.1	8.9	9.3
Salta	16	14	21	5.1	3.0	1.8
San Juan	14	12	20	3.4	2.2	1.5
Mendoza	12	24	32	3.7	2.9	3.5
La Pampa	—	—	17	—	0.6	1.3
Chubut	—	—	22	—	0.2	0.3
Tucumán	16	16	66	6.2	5.4	4.2

지 방	외국인의 주별 분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율		
	1869	1895	1914	1866	1895	1914
全 國	100	100	100	12.5	25.4	29.9
Capital federal	43.9	34.3	33.3	49.3	52.2	50.5
Provincias: Buenos Aires	28.3	28.3	29.1	19.2	31.0	34.0
Santa Fe	6.6	16.6	13.4	15.7	42.0	35.4
Entre Rios	8.7	6.4	3.1	15.6	21.9	17.3
Corrientes	4.2	2.2	1.4	6.8	9.2	7.1
Córdoba	0.8	3.5	6.4	0.8	10.1	26.5
Salta	1.4	0.5	0.5	3.4	3.9	8.3
San Juan	1.0	0.5	0.7	3.8	6.8	13.9
Mendoza	2.9	1.6	3.7	9.4	13.7	32.1
La Pampa	—	0.5	1.6	—	17.6	36.6

Chubut	—	0.1	0.5	69.3	41.3	47.3
Tucumán	0.2	1.1	1.4	0.3	4.9	9.9

註 : Beyhaut, G., Cortés Conde, R. et al., "Inmigración y desarrollo económico" (mimeo), 1961, Elaborado sobre la base de publicaciones oficiales.

a) Germani, Gino, *La estructura social de la Argentina*.

b) Vicien, Jorge, *Distribución de la población en la República Argentina, 1869 ~1947* (Tesis).

그밖의 지방은 소규모로 인구가 증가하는데 이는 이민자에게 제공하는 그 지방의 자원이 다른 지방과는 달리 수출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은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산타 페, 엔트레 리오스, 꼬리엔테스, 포르도바와 같은 일명 팜파스¹⁹⁾ 지역에 약 90% 가까이가 거주하면서 모든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집단 이주지의 정착화(Colonización)

아르헨티나 연방정부는 계약, 양도, 원조를 통한 집단이민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1865년 존재하고 있었던 집단 이주 정착지와 그들에 의한 경지 면적을 지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13〉 주별 집단 이주 정착지와 경지면적(1865년)

	집단 이주 정착지의 수	경지면적(ha)
Santa Fe	4	4,685
Entre Ríos	2	3,354
Buenos Aires	1	1,604

註 : Florencio T. Molinas, *La colonización argentina y las industrias agropecuarias*, Imprenta Molinari, Bs. As., 1910, p.85.

이들 지방 중 산타 페가 제일 활발하게 집단 이주지의 건설을 주도해 나갔으며, 후에는 포르도바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1895년의 국가 센서스를 보면 당시 집단이주 정착지의 건설은 산타 페와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중심으로 하여 포르도바와 엔트레 리오스 지방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먼저 산타 페 지방의 집단이주 역사를 살펴보면, 1856년에 에스페란사(Esperanza)라 하는 최초의 정착지가 건설되는데 여기에는 프랑스인, 독일인, 스위스인, 이탈

19) 아르헨티나를 5개 지역으로 분류할 때 팜파스는 전체 경제 행위의 80% 이상을 차지해 오고 있다.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y Orientación Económica de la Producción de la Provincia de Mendoza, *Capacidad Económica de Argentina y su distribución*, 1937.

〈도표 14〉 주별 집단 이주 정착지와 경지 면적(1895년)

	집단이주 정착지의 수	경지면적(ha)
Santa Fe	365	1,684,937
Córdoba	146	660,126
Buenos Aires	nil	1,395,129
Entre Ríos	184	430,596

註 : Segundo Censo Nacional de 1895.

리아인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처음에 가문과 해충 그리고 아르헨티나 토양에 대한 무지로 고전을 하나, 곧 정부로부터 손실에 대한 보장을 받아 빠른 속도로 번영하기 시작한다. 이후 두번째 정착지인 산 카를로스(San Carlos)가 1857년에 Beck-Herzog 會社와의 계약으로 건설되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1872년에 30개, 1890년에 241개, 1910년에 약 400개의 이주 정착지가 세워졌다.

산파 웨 지방이 이처럼 빠른 정착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한다.

첫째, 연방 정부와 산파 웨 지방정부의 협력으로 家族農 혹은 小農 위주로의 土地政策을 펴서 이민자들에게 무상대여, 저가판매, 장기 저리 양도의 혜택을 줌으로써 연 10%의 인구 성장률을 유도하였다.²⁰⁾ 1884년 산파 웨 지방의 토지분할 형태는 다음과 같은데 국가 소유 토지 중 460레구아는 새로운 집단 정착지의 개발 목적으로 남겨 놓고 있다.

〈도표 15〉 1884년의 토지분배 현황 단위 : leguas cuadradas

산파 웨주의 총 경지면적	대토지 소유주의 경지면적*	中小農의 경지면적	국 가 소 유
3,644	858	1,416	1,370
(%)100	24	39	37

* 63명이 평균 13 leguas cuadradas씩 소유

註 : M.G. y E.T. Mulhall, *Handbook of the River Plate*, 5ª ed., Bs. As., M.G. y E.T. Mulhall y Trubner and Co., 1885, p.4.

둘째, 파라나(el Paraná)강을 끼고 있어 강을 이용한 수송망이 일찍부터 발달되었고 이어서 1870년대 후반에 철도에 의한 수송 시대가 열리면서 산파 웨는 판파스 지역의 주요 곡창지대로 변모할 수 있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방의 토지는 19C 초에 주로 공을 세운 군인 계급층에게 배분되었으며 주로 목축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었는데 농업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20) Nicasio Oroño, *La verdadera organización del país o realización legal de la máxima "gobernar es poblar"*, Bs. As., 1871, p.44.

발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19C 중반 이후 부에노스 아이레스 당국은 농업 이주단에게 영구 소유로 할 수 있는 토지를 내주어 바이아 블랑카(Bahía Blanca)와 빠따고니아(Patagonia)의 넓은 영토를 정착케 했다.

바라데로(Baradero)시가 1857년 처음으로 “바라데로” 농업 이주 정착지를 건설하였는데 주로 스위스인, 독일인들로 구성되어 빠른 발전을 기약하였다.

이후 많은 법령을 만들어 이 지방에 농업 이주단을 형성함으로써 개발을 시도하나 산따 웨와는 달리 1887년 법령으로 지주들은 개인당 2,700ha까지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또한 地價의 3/4까지를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 있어 대토지 소유자의 수가 점점 더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에 점차 땅 투기 목적의 소유가 늘어나는 한편 토지 소유가 사회적 신분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²¹⁾

엔뜨레 리오스 지방에서 농업 이주단의 개척은 산따 웨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는데 1857년에 우르끼사(Urquiza) 대통령은 산 호세(San José)라는 정착지를 건설하여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인 가족으로 형성된 이민자들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다. 정부의 여러 법규와 법령은 실질적으로 토지 개간을 목적으로 했고, 또한 인구 증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이민자들에게 토지 소유를 용이하게 해 주었다.

이 지방의 농업 정착지의 건설에는 Hirsch 남작에 의해 설립된 “이스라엘 이주자를 위한 자선 협회(Asociación Filantrópica de Colonización Israelita)”가 큰 공헌을 하였다.²²⁾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유태인 정착지는 바로 이 엔뜨레 리오스에 있는 “클라라”(Clara: Hirsch 남작부인의 이름)이며 이는 ICA(유태인의 이주를 위한 국제연합: una asociación internacional para la investigación de los mejores planes de colonización de los judíos)에 의해 1884년에 세워졌다. 1891년에는 러시아계 유태인들이 이곳에 정주한다.

이외의 지방에서는 산따 웨 지방의 인구 급증으로 토지 가격이 오름에 따라, 적은 돈으로 토지 매입이 보다 쉬운 지방으로 이동이 시작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포르도바 지방이다. 포르도바는 교통·통신 수단의 미비로 철도 개설시까지지는 이주에 정체 현상을 보이거나 1870년에 아르헨티나 중앙 철도회사에 의해 라스 토르투가스(Las Tortugas)라는 첫 정착지가 건설된다. 이후 포르도바 정부는 토지 매입, 농업

21) James R. Scobie, “Significación del trigo en el Desarrollo Argentino”, *Rev. de Ciencias Económicas*, XLVIII, Serie 4,

No. 12, Bs. As., 1960, p.1.

R. Foerster, *op. cit.*, p.252.

22) Alsina, J.A., *op. cit.*, p.175.

에 필요한 각종 씨앗 및 기구 대여 등 각종 혜택을 베풀지만 이민자들의 이 지방에 대한 가뭄 걱정으로 다년간 단 하나의 정착지도 건설되지 않는다. 1870년대 말에서야 대규모 이민 유입과 농업 부문의 기술 발전으로 코르도바에도 농업 정착지의 건설이 활발해 진다.

추부트(Chubut)과 빠따고니아(Patagonia) 지방의 첫 정착지는 1865년에 웨일즈인들에 의해 세워졌으나 이 지방은 건조한 기후로 농업에는 적당하지 않으며 또한 관개 시설이 미비되어 있었다. 1873년에 다시 400명의 웨일즈인들이 도착하고 민간 기술자들에 의해 관개시설을 확충하였으나 여전히 노력한 댓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協同運營基金(Depósitos Cooperativos) 제도를 만들면서 이 지방에도 農業定着地の 건설이 활발해져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

꼬리엔페스 지방은 農業定着地の 건설을 위해 토지에 관한 각종 법규를 만들어 1877년에는 결국 미시오네스(Misiones: 당시에는 꼬리엔페스 지방에 속해 있었음)에 이민 정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나, 꼬리엔페스 지방의 외국인 인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산타아고 델 에스페로(Santiago del Estero) 지방은 산타 페 農業定着地の 성공에 따른 확산 효과에 의해 서서히 이민 유입이 시작되었다.

뚜쿠만(Tucumán)은 그들의 주 생산품인 사탕수수 농작으로 인해 매년 더 많은 이민자를 유입할 수 있었다.

살타(Salta), 후후이(Jujuy), 까마마르카(Catamarca)와 라 리오하(La Rioja) 지방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農業移民者의 유입과는 거리가 멀었다.

산 후안(San Juan)과 산 루이스(San Luis)는 각각 포도 재배 및 포도주 산업과 농목업의 발달로 멘도사 지방과 연계되어 이민 유입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멘도사 지방은 이민 정착지라 불리는 농업 중심지는 가지지 못했지만 많은 생산 활동이 유럽 이민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포도 재배 및 포도주 산업, 건과, 올리브 재배를 말한다.

끝으로 중앙 팜파(La Pampa Central)지역은 이민자의 유입으로 점차 농업 위주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부와 번영의 중심이 되었다.

7) 유럽 이민과 아르헨티나의 경제발전

아르헨티나로의 유럽 이민을 시대별로 보면 1860년대에서 187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들 이민자들의 수는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농목분야에서의 노동력 필요와

〈도표 16〉 인구 100명당 외국인 비율과 전체 주민수

年	전체 주민(단위: 천)	외국인 점유 비율(%)
1869 I Censo	1,737	12.1
1895 II Censo	3,955	25.5
1914 III Censo	7,885	30.3

註: G. Germani, "La inmigración masiva y su papel en la modernización del país", en *Política y Sociedad en una época de transición*, Paidós, Bs. As., 1968, p. 247.

아르헨티나 정부의 영토에 대한 통제력 강화로 인해 1880년대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1870~1914년에 유럽인들의 유입은 다른 여러 가지 영향 외에도, 특히 經濟・社會構造面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이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발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질서에 통합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여기서는 유럽 이민이 아르헨티나 경제・사회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① 유럽인의 대규모 유입은 아르헨티나 人口構造形態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급속한 인구 증가를 가져왔다. 1869년 총인구에서 이들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2.1%였던 것이 1895년에는 25.5%, 1914년에는 30.3%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1850년 이후 이주해 온 이민자들의 후손을 계산에 넣으면 80%에 달하였다.²³⁾

이민이 유입되기 전에 1.6%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던 아르헨티나는 1870년에서 191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연 평균 인구 증가율이 3.3%였고, 특히 1900년과 1914년 사이에는 4.3%²⁴⁾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결국 1870년에서 1914년대의 인구 증가율 중 51.5%에 달하는 인구 증가와 특히 1900년에서 1914년에서의 62.8%의 인구 증가는 이민자들로 인해 얻어진 결과이다.

② 아르헨티나의 산업 구조에서 볼 때 1914년 전체 노동 인구 가운데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47%인데, 이를 1, 2, 3차 산업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1차 산업 37%, 2차 산업 53% 그리고 3차 산업 50%의 참여율을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이러한 고용 인구 조사는 1차 산업에 종사했던 인구가 수확이 끝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이루어진 후에 실시하기 때문에 결국 2,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1차 산업 종사자 비율보다 크게 나타난다.²⁵⁾

③ 이민 인구 중 經濟活動人口는 80% 정도였고 그들 중에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

23) G. Germani, "La inmigración masiva y su papel en la modernización del país", en *Política y Sociedad en una época de Transición*, Paidós, Bs. As., 1968, p. 247.

24) CEPAL, *Análisis y proyecciones del desarrollo económico*, V, El desarrollo económico de Argentina, México, 1959, p. 400.

25) G. Germani, *Estructura Social de la Argentina*, Bs. As., Raigal, 1955, p. 129.

〈도표 17〉 산업구조 부문별 인구 100명당 차지하는 외국인 비율(1914년)

부 문	1914
1차 산업	37
2차 산업	53
3차 산업	50
노동 인구	47

註：■ Censo Nacional 1914.

〈도표 18〉 이민자들의 연령별 구조 (단위：%)

시 기	1~12세	13~60세	60세 이상
1871~ 80	16.2	82.7	1.1
1881~ 90	15.2	83.7	1.1
1891~1900	15.8	83.2	1.0
1901~1910	15.9	83.1	1.0
1911~1920	14.7	84.1	1.2
1871~1920	15.6	83.4	1.0

註：Beyhaut, G., Cortés Conde, R., Gorostegui, H. y Torrado, S., *Inmigración y desarrollo económico*, Buenos Aires, 1961.

〈도표 19〉 이민자들의 성별 구조 (단위：%)

시 기	남 성	여 성	시 기	남 성	여 성
1871~1880	70.4	29.6	1901~1910	72.6	17.3
1881~1890	69.6	30.4	1911~1920	69.9	30.1
1891~1900	70.7	29.3	1871~1920	70.6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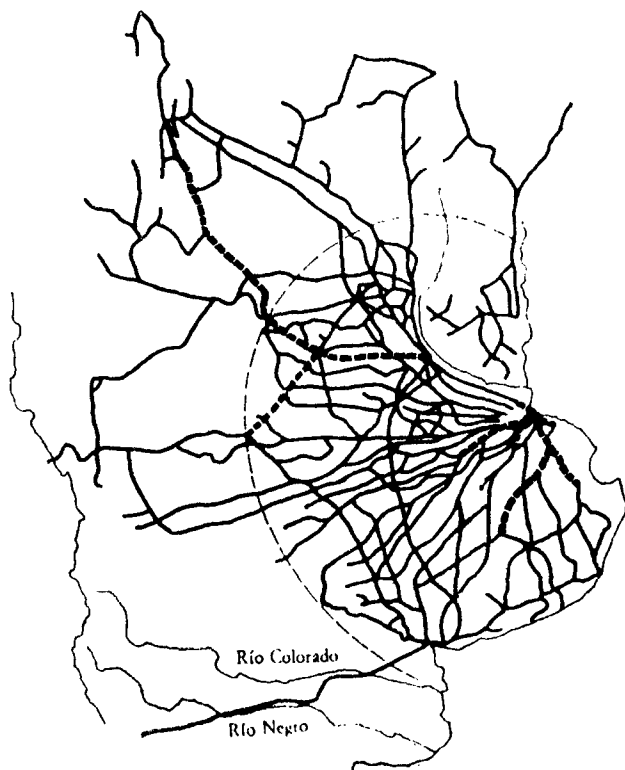
註：Ibid.

은 70%에 달하였는데 결국 이러한 수치는 이들의 전체 노동인구에의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며, 이들이 국가의 富를 축적하는 데 있어 주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④ 이민자의 대다수가 經濟活動人口이며 남성들인 관계로 그들은 노동시장 형성에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農牧經濟의 빠른 성장은 매번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으며 실제로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일할 목적으로 유입된 노동력은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어 19C 말엽에는 이들 유럽 이민 노동력에 의해 노동시장이 통합된다.

⑤ 이민자들은 또한 1880년 이후 철도망의 발전과 더불어 해안 지역과 팔파의 내륙 지방을 연결시켜, 꼬르도바와 뚜꾸만 북부지역, 멘도사의 서부, 부에노스 아이레스 남부와 동부 그리고 라 팔파 지역을 하나로 잇는 경제권 통합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도표 20〉 아르헨티나의 철도망(1879~1914)



■■■■ 1879.12.31 철도망
 — 1880~1914 건설된 철도망
 팜파지역 경계

註: Lewis Colin M., *British Railways in Argentina 1857~1914: a case of foreign investment*, London, 1983, p.63. 참조.

⑥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익한 노동력을 제공한 이들 이민자들은 전국적으로 정착하면서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1914년에 전체 부동산의 10%, 국가 공무원의 18%, 그리고 목장소유주의 22%를 차지하였으며, 상업소유주의 74%, 공업소유주의 66%를 차지하고 있었다.²⁶⁾

⑦ 목축업의 경우, 특히 羊毛産業分野에서 국토의 가용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羊毛生産에 있어서의 품질향상은 유럽의 纖維産業의 성장으로 인해 누구보다도 그 필요성을 느꼈던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바스크 등지의 이민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물과 울타리를 이용한 羊의 사육과 종자개량 및 영양면에서 신기술을 도입했는데, 이같은 羊毛産業의 발전은 가

26) Argentina, Censo Nacional 1914.

죽, 포육, 수지를 중심으로 했던 초기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수출재로 부각되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었던 유럽의 섬유 산업에 주 공급원이 되면서 일약 세계 경제의 대열에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⑧ 농업분야에서는 비옥한 땅과 온화한 기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유럽인들의 유입으로 인해 서서히 성장하여 1876년에는 밀의 첫 수출이 이루어지는데 이후 철조망이 쳐지고 경계가 그어지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급성장을 보이게 된다. 즉 이주 지역의 확장과 철도망의 확충, 도시의 건설, 경작 면적의 증대 등은 풍부한 자원(땅과 노동력)의 집약적 사용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농업의 발전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⑨ 19C 말경에 농업은 목축업과 깊은 상호 관련성을 갖는다. 즉 알팔파(Alfalfa)의 경작은 전형적으로 농업과 목축업간의 관계를 말해주는 예인데, 곧 알팔파의 재배는 헥타르당 우수한 육류 생산을 가져오는 한편 더 많은 노동력을 요한다.

이러한 農牧業間의 상호 의존으로 육류 수출이 증가되며, 이어서 신기술의 발달로 냉동육의 수출이 20C 초에 들어와 일대 붐을 일으켰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의 수출재가 처음 가죽에서 양모, 양모에서 농산물 그리고 이어 육류 등으로 끊임없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⑩ 이민자의 급증으로 공업화 과정의 기초 단계라 할 수 있는 식료품산업과 건설업을 비롯, 몇몇 제조업 분야의 등장을 볼 수 있다. 이 때의 공업은 1차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파생된 것인데 주로 철로에 인접하여 해안에 가까운 지역에 발달되었고, 예외적으로 꾸요(Cuyo)지방의 포도주 산업과 뚜꾸만지역의 설탕 산업은 내륙공업지대이다.

⑪ 이민자들은 사회적 상승 욕구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3차 산업으로도 진출을 꾀하였는데, 이들은 도시의 중심지에서 떠돌아 다니는 행상인으로부터 도매상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종사하였으며 일부는 수출업무와 관련있는 금융 보험업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⑫ 이민자의 대규모 유입은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인 철도망의 확충을 가져와 내륙 지방 깊숙히 이민자들을 수송하였으며 그들에 의해 생산된 수출재를 선적항으로 대량 운반할 수 있게 되었다.

⑬ 대량 인적 자원의 유입과 더불어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팔파지역의 개발을 비롯해 철로 확장,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해 수출부문이 급성장한다. 1914년 아르헨티나에 투자된 외국 자본의 80%가 영국 자본이었는데 이는 해외에 투자한 전체 영국 자본의 9%에 해당되며 중남미에 투자한 액수의 42%에

〈도표 21〉 아르헨티나 경제지수

	1865~69	1910~14	1865~69/1910~14 (연평균 성장율: %)
철도 총연장(km)	503	31,104	15.4
인 구(천)	1,709	7,271	3.3
수출(100만 pesosoro)	29.6	431.1	6.1
수입(100만 pesosoro)	38.0	410.0	5.4
경작 면적(100만ha)	0.58*	20.62	8.3

* 1872년 기준

註: Ernesto Rornquist & C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Argentine Republic in the last fifty years*, Buenos Aires, 1919, pp.26, 116-17, 139-40; Cepal, *Análisis y proyecciones del desarrollo económico*, V, El desarrollo económico de Argentina, México, 1959, Vol. 1, p.110.

〈도표 22〉 아르헨티나 수출 구성비

	1893~94	1900~04	1910~14
산동물	5.8	2.3	2.0
육류: {	0	0	0.6
Vacuna enfriada			
Vacuna congelada	0.1	3.9	7.6
냉동육— {	2.0	2.7	1.3
Ovina congelada			
Tasajo(포육)	4.5	1.1	0.3
기 타	—a	—	—
피혁	16.9	11.2	11.0
양모	27.7	22.0	12.9
유제품: 치즈	nil	0.7	0.3
기 타	—	—	—
牧가공 부산물: 수지	2.7	2.1	2.5
기 타	—	—	—
밀	25.9	20.7	19.4
옥수수	1.3	14.4	17.9
아마	3.3	9.5	10.2
기타 농산물	—	—	—
제분 관련 제품	1.5	2.5	2.6
채유종자 및 씨(아마씨 제외)	—	—	—
신선한 과일	nil	nil	nil
면	0	nil	nil
케브라초 및 그 부산물	0.8	1.8	2.4
설탕	nil	1.0	0.3
광물성 제품 및 어패류	0.9	0.5	0.5
기 타	—	—	—

註: *Anuario de la Dirección General de Estadística*, 1894, Buenos Aires, 1895, pp.136-171.

Anuario de la Dirección General de Estadística, 1905, Buenos Aires, 1906, pp.289-336

Anuario de la Dirección General de Estadística, 1914, Buenos Aires, 1915, pp.750-759.

상당한다.²⁷⁾ 한편 이러한 외국 투자는 더 많은 이민 유입을 초래하여 자본투자와 이민에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⑭ 대규모 유럽 이민 이주로 1870년 이후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급성장하는데, 수출은 1869년~1914년에 연평균 6.1%의 성장율을 보여 14배가 증가하였고, 수입은 연평균 5.4%로 거의 11배가 증가하였다. 한편 철도의 총연장은 연평균 15.4%의 성장율로 거의 62배가 증가하였고 경작 면적은 8.3%의 성장율로 36배 증가하였다.

먼저 아르헨티나의 수출 구성을 보면 1870년에 농산물 수출이 전체의 1%미만, 목축업이 95%를 차지하였으나 1890년대에는 30% 對 60%, 1910년대에는 53% 對 43%로 농업 부문이 목축업 부문을 앞서게 된다.²⁸⁾ 이를 시대별, 부문별로 보면 목축업 분야에서는 단지 냉동육만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 그외의 가죽, 양모 수출은 크게 감소하는 반면, 농업 분야에서는 밀, 옥수수, 亞麻의 비중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적 자원의 유입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수출재가 보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쪽으로 변화해 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표 23〉 아르헨티나의 주요 교역 대상국 분포도

	수 입 (%)			수 출 (%)		
	1, 874	1, 882	1, 910~14	1, 874	1, 882	1, 912
영 국	29	31	31.2	12	12	26
프 랑 스	22	19	9.4	18	26	7.5
벨 기 에	3	5	5.2	35	23	7.7
독 일	4	8	16.8	2	8	11.1
미 국	—	8.3	14.4	—	5	6.8
이 탈 리 아	—	5	8.5	—	2.5	4.4
스 페 인	—	4	3.1	—	2.5	0.7

註 : 1874 y 1882; M.G. y E.T. Mulhall, *Handbook of the River Plate*, 5ª ed., M.G. y E.T. Mulhall y Trubner and Co., Buenos Aires y Londres, 1885, p. 76.

1882 y 1912; Vicente Vázquez-Presedo, *El Caso Argentino*, EUDEBA, Buenos Aires, 1971, p. 147.

1910~1914; *Anuario de la Dirección General de Estadística*, 1914, Buenos Aires, 1915, pp. 750-759.

27) Cairncross, A.K., *Home and Foreign Investment 1870~1913*, Cambridge, 1953.

Vicente Vázquez-Presedo, *El Caso Argentino*, Bs. As., Eudeba, 1971.

28) David Rock, "The Argentine Economy 1890~1914: Some Salient Features", D.C. M. Platt, *Business Imperialism 1840~1930, An Inquiry based on British Experience in Latin America*, Oxford, Claredon Press, 1977. D.C.M. Platt and Di Tella, Guido, *The Political Economy of Argentina, 1880~1946*, MacMillan, London, 1986.

〈도표 24〉 아르헨티나의 수입 구성비

	1900~04	1910~14	1925~29
소비재	38.7	36.7	37.1
비내구재	36.6	31.8	26.0
내구재	2.1	4.9	11.1
(자동차)	(—)	(1.1)	(6.3)
(기 타)	(2.1)	(3.8)	(4.8)
중간재 및 원자재	37.2	32.6	30.8
연료 및 운할유	3.1	5.1	4.7
금속제품	7.6	6.2	5.9
기 타	26.5	21.3	20.2
자본재	21.0	29.9	31.8
건설장비	6.6	10.8	10.2
농촌용 기기 및 기계류	1.6	2.3	4.9
공업용 기기 및 기계류	12.1	14.2	13.3
수송 및 통신 기기 및 기계류	0.7	2.6	3.4
기 타	3.1	0.6	0.4

註 : CEPAL, *Análisis y proyecciones del desarrollo económico*, Vol. 1, México, 1957, p. 110.

아르헨티나 수출의 지형학적 분포를 보면 1900년 대에 영국은 최고의 교역 대상국이었으며, 그외에도 프랑스, 벨기에, 독일, 미국 등이 있다.

수입 구조를 살펴 보면 1900~1904년의 기간과 1910~1914년의 두 기간에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소비재(유럽 이민의 증가로 비중이 더욱 커졌음)의 경우 전반기에서는 39%였으나 후반기에 가서는 국내 산업의 참여로 37%가 되었으며, 원자재와 중간재는 37%에서 33%로 떨어졌으나 오히려 연료와 운할류의 수입은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자본재는 21%에서 30%로 증가하는데 이는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또한 수출 지원 정책에 따른 결과이다. 수입에서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영국이 주 상대국이었으며 그외에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이 있다.

아르헨티나와 주요 7대 교역대상국간의 특징을 살펴 보면 아르헨티나 수출의 90%는 판파스지역에서 생산된 1차산물로서 주로 영국, 독일, 프랑스가 수입하였다. 수입에 있어서는 영국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이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주 수입재이며, 이들 7대 수입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약 90%를 점유하였다.

위에 열거한 사실대로 아르헨티나는 대규모 유럽 이민의 유입으로 1차수출경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최고도의 성장율을 계속하여 이루었다.

여기서 한 국가의 경제발전 요인을 ① 노동의 증가 ② 자본의 증대 ③ 기술발

전²⁹⁾으로 나누어 각 요소가 성장에 어느 정도 공헌하는가를 파악해 보면 쉽게 아르헨티나에서 이민유입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르헨티나가 기록한 경제성장을 분석해 보면 노동력 공급 요인이 약 50%를 차지하고, 자본 요인이 약 1/3을 그리고 신 기술 도입이 1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르헨티나가 그들의 풍부한 천연자원에 매력을 느낀 외적 요인에 의해 발달된 이래, 1차수출경제 모델과 계속적인 수출재의 다양화는 이민자들의 유입에 의한 소산이었다.

1913년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경제 규모를 보면 북서유럽과 미국이 전체의 65.4%를 차지하여 앞도적이고 여기에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를 포함하면 72.7%에 달하는데 이 3개국 중 아르헨티나는 캐나다, 호주를 앞서면서 세계 8위에 랭크된다.

이를 수출재별로 보면 밀이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며, 옥수수는 1위, 양모는 호주에 이어 2위, 육류와 냉동육이 세계 1위³⁰⁾를 기록하면서 국민소득도 상당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1913년 국민소득은 독일, 벨기에와 비슷하고, 대규모 이민을 송출한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그리고 스위스의 수준을 상회하였다.

〈도표 25〉 세계 시장에서의 國別 占有比

국	가	비율(%)	국	가	비율(%)
미	국	13.95	네	델	7.11
카	나	2.42	영	국	14.69
호	주	1.97	독	일	13.81
스	페	1.17	스	칸디나비아	2.29
이	탈	2.76	스	위	1.53
아	르	2.96	기	타	18.58
벨	기	4.03			
인	도	4.76			
프	랑	7.97	총		100.00

註 : De Yates, *Forty years of Foreign Trad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59, p.166.

29) E.F. Denison, *How Japan's Economy Grew So Fast?*,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6.

宋丙洛, 韓國經濟論, 서울, 博英社, 1982, pp.92-101.

30) 밀의 경우 F.A.O., *Yearbook of Agricultural Statistics*, 1909~1913.

옥수수의 경우 Yates, *Forty Years of Foreign Trad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59, p.166.

양모의 경우 *Ibid.*, p.109.

육류 및 냉동육 D.C.M. Platt, *Business Imperialism*...., p.292.

3. 결 론

본 논문에서 살펴 본대로 1870~1914년의 아르헨티나 경제발전은 유럽이민과 같이 하며, 결국 유럽 이민은 아르헨티나의 부의 창조와 번영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유럽 이민이 아르헨티나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인구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인구성장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經濟活動人口에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各生産構造에 있어 이들 移民者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초보적인 가축 경제에서 다양화된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노동인구의 증가로 노동시장이 통합되었다.

—팜파지역 및 내륙 지방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목축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도입과 농업 생산의 증대가 이루어졌다.

—一次輸出經濟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국내시장의 확장과 통합을 가져왔다.

—계속적인 수출 증대를 위한 外國投資가 확대되었고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아르헨티나는 국가형성과 더불어 많은 정치가들의 사상과 정책을 憲法 第25條에 담아 국가의 移民受入 政策과 國家經濟 復興에 최우선을 두고 유럽인들의 이민을 받아들임으로써 영토확장과 농목산업의 발달, 수출증대를 도모하였다. 즉 이들 이민자들이 아르헨티나의 경제발전과 국가부흥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La contribución de los inmigrantes europeos en el desarrollo económico argentino durante el período 1870~1914.

**Kim, Hyun-Chang
Choi, Yoon-Kook**

El presente trabajo analizó el papel decisivo de la inmigración europea en el período de rápida expansión de la economía argentina, que se inicia en la década de los 70 y llega hasta 1914.

El desarrollo económico argentino durante el período estudiado no podría ser comprendido sin un análisis detenido de la inmigración masiva. Ella era “parte integrante y fundamental” del proceso de transformaciones económicas y sociales, concentrándose en zonas pampeanas escasamente pobladas. En resumen, enumeramos la incidencia de la inmigración europea en la economía argentina.

1. Transformación de la estructura demográfica argentina, contribuyendo al rápido crecimiento de la población y su alta proporción en la población activa total.
2. Su activa participación en la estructura productiva.
3. Transformación de la época del curero, en una economía diversificada.
4. Formación de un mercado de trabajo libre y unificado.
5. Explotación de la zona pampeana y de otras regiones del interior.
6. Introducción de nuevas técnicas en la ganadería y aumento de productos agrícolas.
7. Gran expansión de la economía primaria exportable.
8. Aumento de exportaciones, su diversificación y formación de un mercado nacional integrado y bastante amplio.
9. Requerimiento de la infraestructura y el capital extranjero para estimular la constante expansión de exportaciones.
10. Así los inmigrantes contribuyeron a poner en marcha la producción agropecuaria y a aumentar sus exportaciones. Con su activa participación en la expansión y transformación estructural de la economía argentina durante

el período de la economía primaria exportable surgió un mercado nacional más o menos integrado y bastante amplio. Este auge de la economía argentina reveló un grado muy alto de inserción en el mercado mundial de cereales y carnes que se estructuraba, mostrando gran capacidad y flexibilidad para responder a las nuevas oportunidades comerciales, muchas de las cuales eran imprevisibles.